



▲ 12월 5~7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및 서부 렌의 변화가와 고풍스러운 거리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상 알리기 활동을 하였다. 행인들에게 파룬궁 공법을 시연하고 요고(腰鼓) 공연을 펼쳐 평온하고 향상하는 정신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중국공산당에 박해받는 진상을 알리고 함께 박해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많은 시민이 파룬궁 박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85만 487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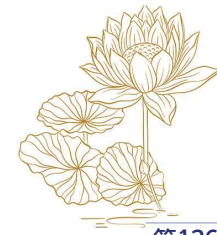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9期(2025.12.19) WWW.MINGHUI.ORG

한글판 1033호 minghui.or.kr



▲ 11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존 코닌(John Cornyn)이 미국 남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불학회(佛學會)에 서신을 보내 선원예술단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 고전무용과 음악 및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공유하는 헌신적인 정신을 찬양했다.

주요내용

【해외종합】 미 국회 인권보고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규탄

【해외종합】 캐나다 의원 65명,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규탄 공동성명

【해외종합】 독일 언론, 중공 생체 장기적출 폭로...“사회는 영혼 팔지 말아야”

〈목차〉

■ 해외종합

미 국회 인권보고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규탄	3
캐나다 의원 65명,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규탄 공동성명	7
독일 언론, 중공 생체 장기적출 폭로...“사회는 영혼 팔지 말아야” ..	14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6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2
---------------------------------	----

■ 수련교류

사부님께서 제자와 중생을 위해 감당하신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다	25
대면으로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집착을 없애다	32
자신을 잘 수련해 선한 마음과 실제 사례로 경찰을 감동시키다	36
정념으로 박해를 부정하고 공능을 운용한 약간의 체득	39
사람의 상태로 안으로 찾는 것과 수련인의 상태로 안으로 찾는 것	45
남을 먼저 생각하니 난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다	50
‘오래된 자격을 내세우는 것’과 ‘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	54
사부님의 가지로 안면마비 가상을 극복하다	57
청년 제자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61

■ 시사평론

중공 체제하의 법률을 명확히 인식해야	66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원, 법원, 정부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고(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전원에게 지속적이고 위법하며 잔인무도한 박해를 가했다. 겉으로는 중공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실은 법률과 중공 자체를 만겁불복(萬劫不復·영원히 회복할 수 없음)의 지경으로 가속 화해 밀어 넣은 것이다.

현재 중공은 소위 ‘의법치국’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민심을 완전히 잃은 후 사람을 속이는 술책일 뿐이다. 알려진 바로는 매일 베이징에 수많은 청원인이 모이고 있으며, 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억울하게 조작된 사건과 정부의 무사안일이다. 그들의 모든 문제는 중공이 만든 것인데, 중공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중공이 변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공이 중국에 들어온 이래 줄곧 온갖 갈등을 조장해왔으며, 지난 세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공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중공에서 탈퇴해야만 희망이 있다.

여러분도 각종 법률 법규, 규정 등이 너무 많아 이미 범람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공에 의해 나쁘게 변질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소송하지 말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모두가 조금씩 사랑을 바친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인간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들을 쥐어짜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중국인들에게 더 이상 법률을 믿지 말고, 소위 공평과 공정 또한 믿지 말라고 알리기 위해서다. 중공이 멸망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이 없어야 중국에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 중공 악당에 대해 어떤 희망이나 환상도 품지 말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모든 재난은 중공이 불러온 것이다. 중국인들 모두가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產黨, 이하 9평)’ 책을 보시길 바라며,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접하거나 불기회가 있다면 소중히 여겨 잘 읽어보시기를 희망한다.

전통문화 회복이야말로 문제 해결책

우리는 흔히 스스로 신의 백성이라 말한다. 우리 중국은 5천 년 역사를 지닌 문명 고국(古國)이다. 신전문화(神傳文化)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이지, 결코 중공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의 백성이며 역사적 인연이 있는 존재다. 모두가 서로 적대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만나면 서로 친밀함을 느끼는 상태로 바뀌기를 바라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중공의 법률을 믿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사실 중공이 “파룬궁을 이기겠다”고 떠벌린 그 순간부터 중공의 멸망은 이미 결정됐다. 중공이 법률을 이용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형을 선고한 날부터, 법률은 이미 공정성을 잃고 존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신의 자비는 무한히 광대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장쩌민 고소’를 통해 중공 법률에 한번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전국 20여만 명의 장쩌민 고소 사건 앞에서 중공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안,

■ 해외 종합 ■

미 국회 인권보고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규탄

[명혜망](왕잉 기자) 2025년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당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2025년 연례 중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해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선원예술단 공연 방해를 규탄했다.

위원회 위원장 “중공 특수요원, 미국서 미행과 협박 자행”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올해 보고서는 중공이 자국민과 전 세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잇달아 어겼는지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은 인권 조약에 서명하고 홍콩과 티베트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글로벌 무역 규칙 준수를 약속했지만, 이후 반체제 인사를 감금하고 강제노동 공장과 불법 어선단을 운영했으며, 심지어 특수요원을 파견해 미국 영토에서 타인을 미행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열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부 및 동맹국에 청사진을 제공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만행의 피해자와 함께 서고, 우리 노동자와 공급망(어업과 해산물 산업 포함)을 노예 노동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중공이 약속 위반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안내한다.”

공동위원장 “중공, 폭정을 세계 다른 국가에 강요”

위원회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중공 치하의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을 추구하고, 그 목적은 자국민에게

강요한 폭정을 세계 다른 국가에도 강요하려 한다는 것을 거듭 증명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통치하고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며, 이는 서명한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당-국가(Party-State)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자유 세계 여타 국가의 전략적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유지해 온 안정된 국제 질서를 파괴하려는 체제적 경쟁자다. 약탈적이고 중상주의를 신봉하며 강제노동을 이용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치며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어떻게 세계무역기구(WTO)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겠는가? 답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한,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공,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 장기적출 지속

보고서는 특별히 악랄한 인권 침해 행위로 중공이 국가적으로 승인한 인체 장기적출 만행을 꼽았으며, 이런 수법은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보도됐고 최근에는 위구르족 사이에서도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에 제출된 증언과 증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체 장기적출을 자행해 인권과 의료 윤리를 공공연히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혐의가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구금된 특정 인종, 언어 또는 종교적 소수 집단을 목표로 한 장기적출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의회가 ‘강제 장기적출 저지 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 강제 장기적출 현황에 대한 국무부의 연례 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관광’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 재심, 항소는 권력 앞에서 허울뿐인 장식품이었다. 이것이 내가 사회에 나와 겪은 첫 번째 불공정이었다. 그 후 나는 너무나 많은 불공정을 접했고, 나를 찾아온 의뢰인 대부분은 명백한 불공정의 피해자였다. 훗날 형사 사건의 불공정도 끊임없이 나타났고, 소위 ‘오류 시정 제도’는 남을 속이는 술수가 됐다.

몇 년간의 고심과 관찰 끝에, 나는 중공이 법조인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하고 싶지 않기에 반드시 글로 써서 폭로하려 한다. 나처럼 각성한 법조계 인사가 많을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적지 않은 선량한 법조인이 더는 그들과 한패가 되어 더러워지고 싶지 않다며 이직하거나 사직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가끔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에휴! 법률은 이미 변질된 지 오래야!”라고 말하곤 한다. 그들에게 파룬궁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면 좋을 텐데, 요즘 세상에 누가 파룬궁 수련생만 하겠어?”라고 말한다.

인과응보의 원인

현재 중국 사법 시스템에서 체포된 사람은 부지기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부터 사법부,公安부, 그리고 각 청(廳)급, 시(市)급, 현(縣)급, 향진(鄉鎮)급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 그들이 체포됐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중공에 이용당한 일원에 불과하며,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계속 위장하기 위해 토사구팽을 당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체포된 자들이 밉기는 해도 그들 역시 중공의 피해자다.

현재 중국에는 돈 벌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으며, 도처에 함정과 사기가 난무한다. 중공은 한손으로는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을 외치며 서민

아는 법률 지식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법률이 완전히 변질돼 본래의 역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당이 서민을 억압하고 재물을 착취하며, 서민과 다른 목소리를 통제하는 족쇄가 됐음을 발견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악당은 고의로 각종 문제를 만들어 무고한 서민들을 소송의 길로 내몰았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책겼고, 2015년부터 일반인의 사건 대리(나홀로 소송 등) 통제를 끊임없이 강화해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런 다음 변호사들을 매수하고 통제했다.

현재 중국의 각계각층은 거의 모두 중공의 통제를 받고 있다. 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기관, 변호사, 기업 등 중공이 통제하지 않는 곳이 없다. 중공은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각종 은행 및 비은행권 대출, 철거, 부동산 등기 등 온갖 수단으로 사회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든 중국에서 경영하는 기업이든, 언제든지 중공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 마치 사부님의 경문 ‘청성(淸醒)을 유지하라’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사당 배후의 사령(邪靈)이 세상 사람을 이용한바,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사회 전체가 서로 해치는 ‘상호 해악’ 상태에 빠졌다. 법률에 대한 나의 확고한 신념은 현실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겪으며 무너져 내렸다.

나에게 처음 의구심을 갖게 했던 민사 사건이 기억난다. 100% 원고가 이기는 사건이었지만, 법관은 기어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 살짜리 아이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단지 체제 내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뒤집히지 않았다. 2

보고서, 파룬궁수련자 박해 사례 열거

보고서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원과 정력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를 ‘사교(邪教, 사이비 종교) 조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사교’는 중공이 자신의 통치를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종교를 지칭하기 위해 도용한 역사적 용어다.

중공 당국은 가장 흔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에 근거해 파룬궁수련자를 구금, 기소, 판결한다. 파룬궁 관련 웹사이트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수십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구금 기간 학대를 받아 사망했고, 다른 수백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당국에 의해 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보고 기간의 일부 구금 사례다.

2025년 2월, 명혜망은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쩌홍타오(左洪濤)가 전년도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그는 징역 13년형을 복역 중이었는데, 파룬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7월 쩌홍타오가 위독해지자 허베이성 바오딩 감옥의 감옥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퇴원 후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냈다. 8월 쩌홍타오는 사망했다. 명혜망은 감옥 측이 가족의 시신 확인을 막고 유족 동의 없이 쩌홍타오의 시신을 화장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인권 비정부기구 ‘권리수호망’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셴양시 친두구 인민법원은 식품 검사원 가오샤오잉(高曉英)에게 온라인에 파룬궁 정보를 유포했다는 죄명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오샤오잉의 가족은 구금된 가오샤오잉을 면회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2024년 3월 재판 직전 짧은 면회만 허용됐으며 재판 방청도 금지됐다고 알렸다.

2024년 11월, 명혜망은 광둥성 광저우시 하이주구 인민법원이 80대 파룬궁수련자 자오잉(趙穎)의 나이와 심각한 건강 상태(방광암, 심장병, 당뇨병 포함)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리수호망’ 역시 자오잉이 현재 감옥에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보도했다.

중공, 국경을 초월한 탄압 자행

중공은 개인을 위협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해외 중국인 사회 구성원과 중공 비판자들을 상대로 다각적인 초국가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략에 언어 및 사이버 괴롭힘, 법륜전, 해외 비밀 경찰서를 통한 신체적 위협 등이 포함된다고 관측했다.

이번 보고서의 연례 초국가적 탄압 사례에는 해외 활동가 6명에게 100만 홍콩달러(약 12만 9천 달러) 현상금 수배, 현상 수배된 활동가의 여권 취소, 국제회의에 참가한 위구르족 인사 협박, 파룬궁수련자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중공이 주도한 초국가적 탄압에 가담한 범죄자 다수를 기소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저명한 민주화 단체 지도자 2명과 중공 비판자를 겨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중국인 12명이 포함된다. 3명은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로형을 선고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외국 정치인과 정부를 겨냥해 해외 민주주의 절차에 개입하고, 중공과 중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두드러진 사례로는 홍콩 경제무역대표부를 이용해 선전을 퍼뜨리고 중공 정책을 홍보한 것, 영국 정부 고위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다시 얼마간 일하면서 나는 법률이 그렇게 신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률 앞에는 사회적 약자가 너무 많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도권을 떠나 변호사가 됐다. 처음에는 지기 싫어하는 용기와 법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각계의 인정을 받았고, 지역에서 제법 명성도 얻었다. 어떤 분쟁이든 가져오면 경험과 실무를 통해 기본적으로 승패를 분석해 낼 수 있었다. 다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지 못할 때도 나에게 소송을 의뢰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일으킨 후, 특히 2015년 이후 법률에 대한 나의 신념은 무너졌다. 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모두 매우 선량하며, ‘진선인(眞·善·忍)’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를 견지하고, 인류의 도덕과 양심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며, 그 어떤 위법이나 기율 위반 행위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1999년 ‘7.20’ 직후, 전국 각 부문은 파룬궁 수련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내렸고, 각 지역 사법국은 파룬궁 관련 사건 수임과 변호사의 파룬궁 수련을 일절 불허한다는 내부 규정을 내렸다. 적지 않은 양심 있는 변호사가 비밀리에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생 사건을 맡았는데, 그 결과 거의 전부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됐다. 나도 줄곧 암암리에 자문을 해왔으나 나중에 고발당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실체를 인식하고 각성하다

비록 업무는 정지됐지만 나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고, 내가

시사평론

중공 체제하의 법률을 명확히 인식해야

글/ 중국 대법제자 위밍(宇明)

[명혜망] 나는 중국에서 30년간 법률업무에 종사해 온 변호사다. 지난 세월을 거치면서 나는 법률이 중공 악당의 도구로 전락했고, 악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특히 서민)을 옹아매는 족쇄가 됐음을 발견했다. 법률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함부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오늘 나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과 알게 된 상황을 종합해 이 글을 씀으로써, 더욱 많은 민중이 악당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려 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다

나는 70년대에 태어났다. 원대한 이상과 공평, 공정, 정의에 대한 추구를 품고, 법률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며 법률은 인류 도덕을 수호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누구도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굳게 믿으며 졸업 후 법조계에 투신했다.

민간에는 “큰 모자(경찰, 판사 등의 관모)는 양쪽 끝이 위로 솟아 있어 원고를 잡아먹고 피고를 잡아먹는다”라는 속설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법원을 선택했다. 법원은 서민들 눈에 참으로 높은 곳에 있었으나, 나는 비교적 ‘우수’했고 ‘당표(공산당원 증명)’가 있었기에 법원 지도부의 신임을 받으며 중용됐다.

그러나 얼마간 일하면서 나는 악당 간부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경우 법률은 만능이 아니었다. 법률과 권력이 충돌할 때 법률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지 않았다.

것, 미국 대선 기간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 정치 보좌관을 통해 미국의 주(州) 단위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 등이 있다.

중공, 선원 공연에 폭탄 테러 협박

보고서는 미국 선원예술단이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예술단은 미국과 전 세계 공연 극장에서 수십 건의 폭탄 테러 협박을 받았다. 파룬궁 지지자들은 이 협박이 중공 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1월, 미 법무부는 천쥘(陳軍)이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죄명은 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미국 국세청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그는 미국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음모에 가담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 운동의 일환으로 천쥘은 중공 정부가 지휘하는 계획에 참여해 미 국세청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조작, 선원예술단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려 시도했다.

캐나다 의원 65명,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규탄 공동성명

[명혜망](잉쑤 기자) 캐나다 연방 상·하원 의원 65명이 공동성명에 서명해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의 26년간 지속된 박해와 점차 확대되는 초국가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중공이 캐나다에서 자행하는 초국가적 탄압과 그것이 파룬궁수련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파룬궁수련자가 관련 부처와 만나 소통할 것을 격려했다.

더 많은 의원이 파룬궁을 성원하며 초국가적 탄압 규탄

공동성명에서는 “우리 서명 의원들은 파룬궁 단체를 성원하며, 중공의 끊임없이 확대되는 초국가적 탄압(TNR)과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26년간의 지속적인 박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서명 활동은 올해 7월 시작됐으며,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까지 공동 서명에 참여한 캐나다 국회의원은 65명으로 늘어났다.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캐나다 영토 내에서 자행하는 모든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중공은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1999년 시작된 파룬궁 박해를 해외로 확장했다. 성명에서는 “지난 26년 동안 캐나다의 파룬궁 수련자는 중공으로부터 감시, 괴롭힘, 협박, 습격, 허위 정보 및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탄압을 당했다. 이러한 행위는 파룬궁수련자 단체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원(神韻) 공연을 방해하며, 나아가 캐나다의 제도, 주권, 핵심 민주 가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의 파룬궁 초국가적 탄압 심각, 공공안전부 장관 우려 표명

성명은 “2025년, (중공은) 선원이 개최되는 캐나다 4개 도시의 공연장에 폭탄 및 대규모 총기 난사 위협을 보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140여 건의 유사 사건 중 일부다. 그중 일부 위협 메일은 발신지가 중국으로 추적됐다. 이러한 행위는 중공이 주도하는 더 광범위한 전 세계적 파괴 활동의 일환으로, 파룬궁과 선원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 대변인 다이궁위(戴工羽)에 따르면, 캐나

책을 읽고 법공부를 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하는 데 써야 합니다.

제자를 위해 온갖 마음을 다 써주신 대법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홀로 수련하는 상황이라 방학 때만 외할머니(수련생) 댁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저의 수련 상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수련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며 귀중한 수련 시간을 많이 놓쳤고 잘못된 일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사부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깨워 주셨습니다. 얼마 전 꿈에 사부님을 두 번 뵈었습니다. 한 번은 사부님께서 저에게 연공하라고 부르셨고, 한 번은 사부님께서 저와 외할머니에게 강의해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부님께서는 줄곧 인자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힘을 내어 노력해야 하며, 더는 예전처럼 ‘사흘 고기 잡고 이틀 그물 말린다’는 식으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법 암기를 시작했고, 매일 명혜망에 접속해 주간 문장을 읽고 사부님의 경문을 보며 하나하나 법에 대조해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좋지 않은 마음을 닦아내니 상태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길든 저는 현재를 잘 파악해 정법노정을 따라가며 사부님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할 바를 몰라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깨끗한 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갑자기 휴지가 생겼지?’ 하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휴지를 사용한 뒤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부엌 열쇠를 안에 둔 채 문이 잠겨버려 온 가족이 애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당장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집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열쇠 구멍에 끼워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멍에 맞추고 돌리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열리다니 믿기지 않아 얼른 달려가 가족들에게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제 재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회상해보면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에게神通(神通)을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가위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내부 구조와 맞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쉽게 문을 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신기하고 사부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유로 대학원 입시에는 성공하지 못해 취직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이라 경험도 없어서 이력서를 대충 작성해 출력한 뒤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곳에서 전화가 와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곧바로 채용됐습니다. 대우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채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뽑힌 것일까요? 나중에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자를 도와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괜찮은 일자리를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시간을 내어

다 공공안전부 장관 게리 아난다상가리는 파룬따파 학회에 서한을 보내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문제에 답했다. 장관은 캐나다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초국가적 탄압과 이 문제가 파룬궁수련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의 심각성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다이 대변인이 이 중요한 문제를 공공안전부에 제기해 준 것에 깊이 감사를 표하며, 공공안전부 내 초국가적 탄압 담당 부서 책임자와 이 문제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가 해당 부서에 계속해서 즉시 보고하고 소통할 것을 격려했다. 다이 대변인은 이미 관련 부서 책임자와 만나 소통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지속 용납해선 안 돼”

캐나다 국회 내 ‘파룬궁의 친구들’ 공동의장이자 캐나다 자유당 중진 의원인 주디 스그로(Judy Sgro)는 인터뷰에서 “이 공동성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룬궁 박해에 반대해 나서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라고 말했다.

“박해는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스그로 의원은 말했다. “이것(초국가적 탄압)은 정말 악랄한 현상입니다. 본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지속되도록 용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파룬궁이 줄곧 중공의 허위 정보를 마주해야 했다고 말했다. 스그로는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중공의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일반 시민이 깨어 있어 중공의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호소

했다. “우리는 시민들을 교육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읽고 있는 (중공의) 어떤 것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중공의 정보전은) 방대하고 끊임없는 전 세계적 공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녀는 캐나다 정부가 초국가적 탄압과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본질을 폭로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공의 (파룬궁과 선원에 대한) 사실이 아닌 선전은 잘못된 정보이자 거짓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초국가적 침해라는 전반적인 문제를 더 훌륭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저는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그 본질을 똑똑히 봤습니다. 제게 이(정보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공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거부할 충분한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하며, 언제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파룬궁의 친구들’ 공동의장인 가넷 제뉴이스(Garnett Genuis)는 중공의 선원 탄압이 중공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는 그 정권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선원의 예술 공연을 위협하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자유를 계속 수호해야 합니다.”

캐나다 보수당 부대표이자 국회의원인 멜리사 랜츠먼(Melissa Lantsman)은 “(선원을 겨냥한) 폭탄 위협이든, 법률전이든, 아니면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잔혹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도구입니다. 중공 정권은 전 세계로 손을 뻗어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모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압하려 합니다”라고 밝혔다.

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개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개는 잠시 후 사납게 짖으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반응할 겨를도 없이 두 손으로 막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물리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두 손을 내려보니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개가 저에게 닿기 직전 갑자기 급정거하더니 마치 무엇인가를 본 듯 겁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종적을 감출 때까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부님의 법신(法身)께서 저를 보호 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여동생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여동생 역시 신기해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약을 거의 먹지 않았고 주사도 맞지 않았습니다. 병업(病業) 고비가 나타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찼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묵념하고 사부님의 ‘논어(論語)’를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통증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이 맹렬하게 기승을 부릴 때 저에게 ‘양성’ 반응이라는 가상(假相)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부님의 법을 외우고 법을 들으며 정념(正念)을 발해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나타났던 증상은 다음 날이 되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신기한 일들은 또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를 챙기지 않은 것을 알고 친구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깜박 잊어버렸고, 곧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라 어찌

렸습니다. 저는 그 손이 제 등만 하게 크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온 저는 들이켰던 물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했습니다. 목욕탕을 나온 후 교실에 앉아 이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이상했고 그 손이 매우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저는 그것이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역시 초등학교 때였는데, 방학을 맞아 이웃 친구들과 놀러 갔습니다. 저희 몇 명은 그 친구 집 대문 앞까지 뛰어갔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냥 가지 않고 담벼락 옆 짚단 더미를 밟고 지붕에 올라가 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올라갔는데, 기와집에 덧대어 지은 그 헛간 지붕 속이 비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걸음 옮기자마자 머리부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져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랐고, 제가 떨어진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어른들을 불러왔고, 어른들이 저를 부르자 저는 곧바로 일어나 그들에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와 마을 의사에게 상처 치료를 받았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부님께서 또 한 번 제자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제자를 위해 거대한 업력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시지 않았다면 열 살도 안 된 아이가 몇 미터 높이 기와집에서 머리부터 수직으로 떨어졌으니 아마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였습

캐나다 예비내각 국방부 장관 제임스 베잔(James Bezan)은 중공 정권이 선원을 “자신들의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편집증을 보인다고 밝혔다. “단지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공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건 정말 구역질 나는 일입니다. 이는 시진핑과 그 정부가 얼마나 편협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베잔 의원은 국회에 C-219 법안을 발의해 처음으로 법률에 ‘초국가적 탄압’을 명확히 정의했다. “이 법안은 캐나다의 제재 법률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국가적 탄압을 자행하는 자들을 겨냥하는 것을 포함해, 캐나다가 부패한 외국 관리들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그 관리들은 중국과 다른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며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 “G7 성명,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야”

2025년 캐나다, 미국, 유럽, 호주, 대만 등 전 세계 400명이 넘는 정계 인사가 목소리를 높여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 심화와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25년 6월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초국가적 탄압은 권리와 자유, 국가 안보 및 국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초국가적 탄압의 위협성을 명백히 보여주는데, 이는 바로 G7이 전 세계가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절차 및 원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보수당 중진 의원

인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는 인터뷰에서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은 심각한 문제이며 중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반드시 동맹국과 협력해 베이징의 괴롭힘을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이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성은 현 정부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조속히 ‘외국 대리인 등록처’를 가동해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을 타격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가 2024년 통과시킨 국가보안법 ‘반외국간섭법’(C-70)은 외국 세력의 캐나다 정치, 사회에 대한 침투와 조종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외국 대리인 등록처 설립을 요구하며, 외국 의뢰인과 관련된 자는 공개 등록을 해야 하고, 정보공유와 형사 처벌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인 슈발로이 마쭈다르(Shuvaloy Majumdar) 의원은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가 G7 성명을 실천에 옮겨,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국의 종교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룬궁수련자의 종교 자유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외국 정부가 캐나다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표현하는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외에도 캐나다 각지 시민들도 잇따라 청원서에 서명해 파룬궁을 성원했다. 현재 이미 여러 선거구의 의원들이 민의를 대표해 국회에서 중공의 박해와 초국가적 탄압 저지를 위한 청원서를 낭독했다.

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머릿속도 훨씬 맑아졌고 법공부도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4일 후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얼굴이 정상으로 회복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제가 한때 이른바 ‘안면마비’를 앓았다는 것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부님의 보호와 가지 속에서 저는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으며, 마음속에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고비를 넘긴 과정을 글로 남겨 수련생들과 함께 정진하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고도(苦度)를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청년 제자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청년 대법제자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수련하신 덕분에 저는 아주 어릴 때 대법(大法, 파룬궁)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단체로 학교 목욕탕에 데려가 목욕을 시켰는데, 반마다 선생님들이 인솔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간 저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겁이 나서 탕 가장자리에만 앉아 있고 감히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탕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물이 깊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고 몸이 물에 동동 뜨자 겁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힘껏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차 흐릿해지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느낀 순간, 물 밑에서 커다란 손 하나가 나타나 저를 물 위로 받쳐 올

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파룬은 모든 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심성에서 원인을 찾아서 제고해야 맞는 거예요.” 어머니도 찬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네 차례 정각 발정념 외에도, 또 10분 동안 다른 두 명의 수련생과 저 자신을 위해 발정념을 했습니다. 법을 배우며 자신을 비춰보니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현재 말세의 병원들은 이미 매일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병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복과 업력에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대법을 수련해야만 구세력의 안배에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삼계는 사부님께서 중생이 구원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 우리 수련인이 그 안에서 속인처럼 생활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대법과 동화하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교란일 뿐입니다. 수련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물질적 재부와 정(情)에 대해 담담해지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깨끗해져야 법리가 드러나고, 그래야 사상적으로 구세력의 교란을 철저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발정념을 하든 진상을 알리든 그래야만 대법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법공부하고 발정념을 거치자 상황이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오른쪽 얼굴을 기본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움직임의 폭이 조금 작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자가 수련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제 공간장 속의 사상업을 제거해 주시며 제 정념을 가지해 주신 것

부록: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끊임없이 확대되는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우리 서명 의원들은 파룬궁 단체를 성원하며, 중공의 끊임없이 확대되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26년간의 지속적인 박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룬궁(파룬따파라고도 함)은 진선인(眞·善·忍)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로운 수련이다. 1999년부터 중공은 줄곧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통해 이 신앙 단체를 소멸시키려 시도해 왔다.

2025년, (중공은) 선원이 개최되는 캐나다 4개 도시의 공연장에 폭탄 및 대규모 총기 난사 위협을 보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140여 건의 유사 사건 중 일부다. 그중 일부 위협 메일은 발신지가 중국으로 추적됐다. 이러한 행위는 중공이 주도하는 더 광범위한 전 세계적 파괴 활동의 일환으로, 파룬궁과 선원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있다.

지난 26년 동안 캐나다의 파룬궁수련자는 중공으로부터 감시, 괴롭힘, 협박, 습격, 허위 정보 및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탄압을 당했다. 이러한 행위는 파룬궁수련자 단체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원 공연을 방해하며, 나아가 캐나다의 제도, 주권, 핵심 민주 가치를 위협한다.

2025년 6월 발표한 선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하고, 초국가적 탄압은 권리와 자유, 국가 안보 및 국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초국가적 탄압의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

주는데, 이는 바로 G7이 전 세계가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캐나다 영토 내에서 자행하는 모든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독일 언론, 중공 생체 장기적출 폭로…“사회는 영혼 팔지 말아야”

[명혜망](베를린 지국) 2025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독일 베스트도이체 알게마이네 차이퉁(WAZ)은 겔젠키르헨(Gelsenkirchen) 지역판에 ‘우리는 생체 장기적출을 못 본 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독일 사회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팔아서 안 되며, 중국공산당(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을 못 본 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겔젠키르헨시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중부에 위치한 인구 밀집 대도시 지역이다. 베스트도이체 알게마이네 차이퉁 지역판은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회(DAFOH)’ 유럽 부회장이자 이 지역 주민인 안드레아스 베버(Andreas Weber) 의사를 인터뷰해 인권의 날 당일에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우선 DAFOH의 취지와 배경을 소개하고 베버 의사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 단체는 중국(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과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전래된 정신

자신의 생각이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시험이 뒤따라왔습니다. 이튿날 병업 현상이 가장 심해졌는데, 눈이 감기지 않고 매우 시리고 아팠습니다. 마음속에서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좀 맞고 부기를 빼야 하나? 48시간의 가장 좋은 치료 시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효과가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생각이 나오자마자 저는 즉시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상업(思想業)의 교란이다. 반드시 단호히 배척하고 제거해야 한다. 이런 병업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분명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대법에서 벗어났기에 나타난 것이다. 대법 수련자로서 나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안으로 찾아 부족함과 집착을 찾아내며, 대법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로잡아야 한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일사일념(一思一念)에서도 구세력이나 부패된 요소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대법제자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을 교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는 먼저 자신의 언행부터 바로잡는 데 공을 들이고, 발정념의 강도를 높이며 법공부를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공부는 반드시 마음에 와닿게 해야지, 진도 나가는 빠름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마음을 조용히 하고 법공부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 제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오른쪽 입꼬리가 아주 약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뵈러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수련생)는 제 얼굴이 그런 상태인 것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 흔들리셨는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면 민간요법을 써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건 아니고 장어를 사용하면 낫는다고 하더라.”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여전히 속인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법제자잖아요. 사부님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혹시 뇌경색인가?’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제자가 이런 병에 걸릴 리 없어, 금방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돼도 호전되지 않자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주위성 안면신경 마비’라고 진단했고, 즉시 입원 수속을 밟으며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며 “입원은 안 됩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런 안면마비는 48시간이 가장 좋은 치료 시기인데, 그 시간을 놓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법을 얻어 20여 년을 수련해 온 대법제자인데, 어떻게 구세력이 이런 형식으로 나를 교란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내게 허점이 있어 틈을 탄 것이다. 사부님께서 넣어주신 파룬(法輪)은 모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나는 안으로 찾아 대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직장에서 속인들과 이익 문제로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늘 고함치고 다투곤 했습니다. 당문화의 사악한 기운이 너무 강했는데 이것은 단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구우주의 이치가 남아 있었고, 우리 공간장에 눌러 앉은 구세력의 관념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거하지도 못했으며, 여전히 속인의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련으로, 가부좌와 부드러운 동작을 진선인(眞·善·忍) 수련 원리와 결합한 것입니다.”

기사는 수년간 중국이 소수민족과 약소그룹 구성원을 장기 공급원으로 삼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21년 유엔(UN) 전문가들의 성명을 인용해, 그들이 이와 관련된 ‘민을 만든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 정보가 “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음을 전했다. 국제인권협회(IGFM)도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여러 차례 비난하며 수만 건에 달하는 ‘기증자 장기’의 출처가 완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베버 의사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약 30분마다 한 명이 강제 장기적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피해자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금지되고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자뿐만 아니라 위구르인, 티베트인, 무슬림과 기독교인도 포함됩니다.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는 특히 ‘순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단체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베버 의사는 강조했다. “불법 강제 장기적출이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것(생체 장기적출)은 국가적 행위입니다. 반면 다른 곳에서는 주로 범죄 조직의 소행입니다.”

기사는 현재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인 ‘파룬궁 보호법’을 언급하며, 베버 의사의 설명을 인용해 “이 법안은 DAFOH가 지지하는 것으로, 중공의 조직적인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규탄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의 장기 조달 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베버 의사는 독일과 유럽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독일 장기이식센터와 중국 기관은 여전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남용 행위가 중단됐다는 독립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런 협력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또한 그는 유럽 환자들이 중국 원정 ‘장기이식 관광’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을 DAFOH가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는 중국에 영혼을 팔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은 충격적입니다.” 기사 작성자는 DAFOH 유럽 부회장의 이 말을 확대해 기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베버 의사는 “장기 구매자가 자신도 모르게 공범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가 (중공의) 이러한 범죄를 알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2월 10일은 국제 인권의 날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정보센터는 미국 의회에서 인권 전시회(Human Rights Fair)를 주최했고, 파룬궁수련자는 전시회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26년이 넘는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했다. 선원(神韻)예술탄 전 수석무용수 왕쉬안(王璇)과 누나 왕산산(王珊珊, 리디아 왕)은 미국 하원의원 영 김(Young Kim) 및 인권 전시회 방문객에게 그들의 부모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믿는다는

수련생 중에도 비슷한 현상이 보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번은 제가 어떤 수련생이 하루에 사람을 얼마나 구했는지 이야기하자 다른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난 그보다 더 많이 했어요.” 지기 싫어하는 질투심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승복하지 않아선 안 됩니다. 겸손할수록 남들은 당신에게 탄복할 것입니다.

사부님의 가지로 안면마비 가상을 극복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7년 11월부터 대법 수련을 시작해 오늘까지 28년이 됐습니다. 걸어온 길은 넘어지고 구르는 과정이었지만, 매번 향상하고 고비를 넘길 때마다 모두 사부님의 가지와 보호 속에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11월에 저는 한 차례 병업 고비의 시험을 겪었는데, 사부님의 가지와 보호하에 뚫고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위대하고 자비로운 사부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 고비를 넘은 과정을 글로 남겨 사부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11월 상순 어느 날 오전, 아내(수련생)와 함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제게 “당신 입이 왜 뻐뻐어졌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별다른 느낌도 없었습니다. 차 안의 백미러를 보니 정말로 오른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썹도 올라가지 않았으며, 오른쪽 입꼬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실컷 털어놓았으니 홀가분해야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은 계속 답답하고 억눌려 불편했으며 마치 뭔가가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한 수련생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교류를 들어보니 1년 전과 별다를 게 없네요. 냉담하고 선(善)하지 않으며 마음이 모두와 하나로 녹아들지 않았어요. 당신은 옛 보도소 때 사람이니 좀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해요.” 정말 금옥(金玉) 같은 조언이라 저는 진심으로 그 수련생에게 감사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찾아보았습니다. 쟁투심, 원망심,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 자부심……

안으로 찾는 과정에서 문득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떠올랐고 저는 막힌 것이 확 뚫리는 듯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걸려 있던 것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었고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줄곧 질투심을 닦아내는 걸 중시해서 이 마음이 없다고 여겼는데, 지금 보니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했습니다. ‘그 옛’ 경력을 잊지 못하고 가끔 ‘그때’를 언급하는 것은 오래된 자격을 내세우는 것으로, 남보다 강하고 남보다 잘났으니 남이 날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일만 했을 뿐 마음을 잘 수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부님께서 이렇게 마음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수련생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C를 많이 지지하고 모범이 되자.’ 이 마음을 찾아낸 후 그것이 떨며 도망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념(一念)을 발했습니다. “정(定)! 멸(滅)!” 며칠 내내 정념을 발해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마음이 뚫리고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받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중공에게 4차례 불법 감금돼 건강이 손상됐고, 2009년 9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류아이화(劉愛華)는 현재 여전히 감금돼 있다. 미국 의회 인권 전시회 현장에는 류아이화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2025년 캐나다, 미국, 유럽, 호주, 대만 등 전 세계 400명이 넘는 정계 인사가 목소리를 높여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 심화와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25년 6월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초국가적 탄압은 권리와 자유, 국가 안보 및 국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2025년 12월 9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77주년을 맞아,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DAFOH)는 국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러 국가의 정계 인사들과 저명한 전문가들이 발언을 통해,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온 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집단학살 범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국회의원 짐 새넌(Jim Shann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 생체 장기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으며, 일부 증거는 이것이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모델임을 보여준다.” 그는 또 말했다. “우리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심수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행위를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12월 19일 세계인원의 날, 영국 파룬궁수련자들은 평소와 같

이 런던 시내 차이나타운에서 활동을 열어 파룬궁이 제창하는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했다. 많은 행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였으며, 진상을 알게 된 뒤에는 잇따라 강제 장기적출 반대 서명부에 서명하며 성원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진선인은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예요”라고 밝혔다. 그날 밤, 파룬궁수련자들은 런던 주재 중공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밝히고,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수련자들을 추모함과 아울러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26년간 지속된 탄압과 인권 박해에 항의했다.

스웨덴 국회의원 니마 골람 알리 푸르(Nima Gholam Ali Pour)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공개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공이 아무리 강해질지라도 이러한 비열한 행위는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이 선언서에 적힌 빈말이 아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만약 유럽이 정말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도 자국 시민을 살해해 그들의 장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에서 훈련받은 어떤 의사도 그러한 시스템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 시민은 누구도 중국으로 가서 장기를 구매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매하는 것은 장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 인류에 대한 시험입니다”라고 말했다.

사람 마음을 찾지 못하자 사부님께서는 또 한 차례 기회를 안배해주셨습니다. 그 교류에서 C는 얼굴을 붉히고 핏대를 세우며 제 인식이 낮고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총협조인을 감싸고 있다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총협조인과 제 인식이 달랐기에 그가 사람을 감싸고 소집단을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반감이 들었습니다. 인식을 통일하는 것은 당문화(黨文化)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앞으로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C가 있는 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제고할 기회를 안배해주셨습니다. 최근 한 교류 모임에 C도 왔습니다. 저는 그가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참자,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협조인이 하필이면 저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몇 마디만 하려 했지만 웬지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과거 보도소 시절 제가 어떻게 수련생들을 이끌고 흥법하고 교류했는지, 그때 제가 대형 법회를 열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등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협조인은 현실적인 말을 해야 하고 가식적인 빈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수련생을 아끼고 존중해야지 말로 남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말속의 뜻은 누구나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된 자격을 내세워 C를 질책하고 있었는데, 속뜻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재주가 고작 그 정도면서? 내가 옛날 보도소에 있을 때 얼마나 성대하게 활동했는데 그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지? 지금 총협조인도 나를 존중하며 상의하는데, 당신이 올라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감히 날 질책해? 좀 겸손해야지. 다 같은 수련인인데 누가 누굴 봐준다는 거야?’

과 프린터 조작 및 컴퓨터 사용 관련 지식을 익혔습니다.

이 진상 자료점은 가장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구축됐는데, 과정의 매 단계가 고리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주인과 호흡이 잘 맞는데, 법기(法器)의 주인이 매우 정진하는 수련생이고 개인 수련 기초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착실히 수련하는 S는 장기간 대면 진상을 알리며 진상 자료를 배포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경찰 눈앞에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 구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녀는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정념정행(正念正行)했고 소모품과 잉크를 직접 사서 자료를 자급자족해 ‘작은 꽃(진상 자료 제작소)’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수련생을 위해 사부님 새 경문, ‘명혜주간’, ‘명혜주보’, 전단, 소책자, 대책자를 인쇄하고 진상 지폐를 제작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격을 내세우는 것’과 ‘자기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C가 협조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은근히 좀 불편했지만, 무슨 마음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차례 교류 중에 C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당시 저는 체면이 몹시 ‘깎였다’고 느꼈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찾지 못한 채, 도리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소양이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저녁, 독일 함부르크와 인근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이 함부르크 시내 시청 인근 레젠담브뤼케(Reesendammbrücke)에서 촛불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행인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상대로 현재까지 지속해 온 잔혹한 박해를 폭로하고, 국제사회가 이 박해에 관심을 두고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일본 파룬따파학회는 2025년 12월 9일 나고야에서 파룬궁 박해 반대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파룬궁 박해 증언 집회와 나고야 주재 중국영사관 앞에서의 박해 중단 촉구 시위로 구성됐다. 증언 집회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 9명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자신과 가족이 중국에서 겪은 고문, 불법 감금 등 박해 경험을 눈물로 호소했다. 전 중의원 의원 나카쓰가와 히로사토(中津川博郷)는 영상 축사를 통해 ‘파룬궁 박해 증언 집회’에 지지를 보냈다. 나카쓰가와 전 의원은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등 인권 박해를 폭로하고 제지하기 위해 25년 가까이 노력해 왔다. 즈시시 의회 의원 마루야마 히로아키(丸山治幸)도 영상 축사를 보내 집회를 지지하고 단상에 서서 증언하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금 일본, 바로 이곳에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또 인간의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유린당하는 한 국제사회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타무라 하루오 참의원 의원은 중국의 조직적인 생체 장기적출 문제를 엄중히 비난하며, 일본 형법상 이는 강도살인죄와 같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체 장기적출

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중국 측은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설득력 있고 혐의를 뒤집을 만한 유효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타무라 의원은 “내가 판사라면 반드시 유죄를 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타무라 의원은 중국이 유엔 등 기구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영유아까지 장기 매매 대상이 됐다는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10일 인권의 날 당일에는 일부 수련자가 헬싱키 캄피(Kamppi) 부근에서 촛불 추모 행사를 개최해,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를 기리고 핀란드 사회가 함께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반인류적 범죄를 주시하고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행사장에는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여러 파룬궁수련자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시민들은 장엄하고 엄숙한 장면에 감동해 잇따라 발걸음을 멈추고 진상을 알게 됐으며 서명으로 지지했다. 예술가 피르코(Pirkko)는 현장 분위기에 깊이 감동했다. “저는 꼭 서명해서 여러분을 지지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호주 멜버른 ‘아시아 거리 음식 축제’(Asia Street Food Festival)가 도심 야라 강변의 알렉산드라 가든(Alexandra Gardens)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인파가 끊이지 않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단체는 각각 정오와 저녁 두 차례 등장했다. 사회자는 프로그램 소개 중 여러 차례 열정적으로 파룬따파는 진선인 법리로 심신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공법과 이념이 모두 매우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025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일부 인도네시아 파룬궁수련자가 판중피낭(Tanjungpinang), 자카르타(Jakarta), 리아우 제

법제자는 정체(整體)이므로 수련생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수련생은 감격해서 연신 “고마워요!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감사드려야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수련생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수련생을 도와 자료점을 구축하다

2022년 현지의 S 수련생이 자료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컴퓨터를 쓸 줄 몰랐고 기초가 없었습니다. 수련생을 도와 진상 자료점을 구축하는 것은 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S 수련생의 바람을 저와 협력하는 기술 수련생 H에게 전했습니다. H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함은 우리의 사명이니 당연히 전력으로 지지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수련생과 상의 후, 저는 S에게 컴퓨터를, 기술 수련생은 S에게 프린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저는 컴퓨터를 챙기고, 기술 수련생은 프린터, 복사용지, 잉크 및 자료점 필수 부자재를 챙겨 S의 집으로 갔습니다. S에게 장비를 설치하고 조정한 뒤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저와 H 수련생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저는 S에게 컴퓨터 조작을 가르쳤는데 부팅, 마우스, 키보드 사용부터 인터넷 접속, 다운로드 및 컴퓨터 기본 조작까지였습니다. 기술 수련생은 S에게 인쇄와 설정, 프린터의 간단한 유지·보수 등 기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기술 수련생은 “이 프린터는 법정인간(法正人間) 될 때까지 수련생과 함께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존의 가지 하에 S는 정념이 강해 당일 바로 컴퓨터 부팅, 인터넷, 다운로드, 인쇄, 설정 등 기술을 파악했고, 간단한 유지·보수 등 기초 지식

4월 13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컴퓨터 시스템을 한 번 더 설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스템 설치가 순조롭게 성공한 것입니다. 수련생과 만났을 때는 마침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난제(難題) 같던 일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수련은 정말 엄숙하면서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합니다.

2. 2024년 여름 어느 금요일 저녁, 자료점의 B 수련생이 노트북을 들고 급히 우리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 인터넷 접속, 다운로드, 명혜주간, 명혜주보 등을 인쇄할 수 없어 그녀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몹시 초조해하는 B를 보며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우선 조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컴퓨터가 왜 안 켜지는지 원인을 볼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팅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잘못 입력한 건 아닌가요?” B는 “틀림없어요”라고 확인했습니다. 몇 번 시도해 봤지만 확실히 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스템을 재설치하기엔 늦었으니 먼저 집에 가세요. 제 컴퓨터를 빌려드릴 테니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바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수련생이 간 뒤 저는 즉시 제 컴퓨터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명혜주간’, ‘명혜주보’, ‘평안을 축원(祝您平安)’ 등 진상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스쿠터를 타고 급히 컴퓨터를 수련생 집으로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키보드의 엔터 키가 고장 난 것이었습니다. 금방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던 일이었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료점 수련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대법제자에게는 모두 중생 구도의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대

도 바탐(Batam)시를 차례로 방문해 일련의 진상 알리기 활동을 개최했다. 11월 25일 오후, 판중피낭시 청년체육국장 루리 프리아디(Ruri Friadi)가 파룬궁수련자를 접견했다. 수련자들은 프리아디 국장에게 파룬따파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중공이 중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알렸다. 여기에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만행도 포함됐다. 프리아디 국장은 수련자들의 방문을 환영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파룬따파를 판중피낭시 청년체육국 일상 피트니스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청년체육국장은 직원들을 파룬따파 공법 소개반에 초대했다.

11월 28일, 북자카르타 플루이트(Pluit) 분구 사무소 공공 인프라 및 시설 관리 부서 직원 수십 명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자원 및 어업감독국 직원 몇 명이 파룬따파 공법을 배웠다.

12월 5일, 파룬궁수련자는 초청을 받아 리아우 제도 바탐(Batam)시 캄퐁 자비 지역보건소(Kampung Jabi Community Health Center)에서 소개회를 개최했고 70명 이상이 참가했다.

터키 파룬궁수련자들은 2025년 10월 5일과 12일, 앙카라시 도서전(Ankara City Book Fair)에 참가했다. 터키에서 도서전은 각계각층과 다양한 연령대의 수만 명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이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轉法輪)》을 소개하고, 동시에 파룬따파의 공법을 소개했다.

중 국 소 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랴오닝 헤이산현 헤이산진 파룬궁수련자 장옌샤(張豔霞), 쉬웨이(徐月)가 2025년 6월 3일 경찰에게 가택 침입을 당해 납치돼 줄곧 진저우 구치소에 감금된 채 누명을 썼다. 얼마 전, 헤이산현 법원은 불법 재판관을 열어 장옌샤에게 5년, 쉬웨이에게 2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선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들은 12월 중순 랴오닝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계속 박해받을 예정이다. 법정에서 장옌샤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죄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도 죄가 없다”고 밝혔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후란구 파룬궁수련자 인홍웨이(尹洪偉)와 그의 딸 인리(尹麗)가 불법 감금된 지 1년 가까이 된 후, 하얼빈시 다오와이구 법원에서 각각 4년 6개월과 1년의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인홍웨이는 이미 항소했다. 2024년 12월 19일 아침, 인홍웨이가 집에서 출근할 때 아래층에서 경찰 여러 명에게 포위돼 납치됐으며, 그는 강제로 검은 두건이 씌워졌다. 경찰은 그의 몸에서 집 열쇠를 강탈해 실내로 난입했고, 집에 있던 당시 23~24세의 딸 인리를 납치했다. 경찰은 인홍웨이 집안의 현금, 은행카드, 신분증, 컴퓨터 등 다량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압수해 갔다.

후베이성 우한시 장샤구 파룬궁수련자 왕샤오흥(王小紅)은 2024년 8월 말 경찰에 납치된 후, 친인척은 그가 어디에 감금됐는지 알지 못했다. 최근 왕샤오흥이 이미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24년 6월 11일, 왕샤오흥은

지폐 제작, 수련생의 교류 문장 업로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 발송 등의 일이었습니다.

수련생이 일이 있어 저를 찾지만 하면 저는 늘 전력을 다해 후방 지원을 잘하며 중생 제도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비록 모두 대법의 사람 구하는 항목이지만, ‘선타후아(先他後我)’(정진요지-불성무루)해야 합니다. 수련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다시 기술 수련생에게 도움을 청해 협력하여 처리했습니다.

1. 2025년 4월 9일, C 수련생이 제게 컴퓨터 시스템 설치를 부탁하며 4월 13일에 가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첫 단계를 마치자 전기가 나갔습니다(외부에 있었기 때문). 집에 돌아와 충전한 뒤 부팅 디스크를 꽂았으나 설치가 막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월 12일이 되자 저는 몹시 조급해졌습니다. 최근 사악의 인터넷 봉쇄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고, 수련생의 ‘5·13’ 원고 몇 편도 아직 발송하지 못했으며, 제 원고 역시 다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13일에는 수련생이 컴퓨터를 가지러 오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할 수 없이 기술 수련생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속으로 ‘우선 원고 쓰기에 집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쓰면서 대법의 요구에 대조해 안으로 찾고 안으로 수련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마음과 집착, 수련의 부족함, 심성의 격차를 찾았으며, 또한 수련생의 장점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존께서 제자의 정념을 가지(加持)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니 난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9년 ‘7·20’ 이전에 법을 얻어 수련을 시작한 여성 대법제자입니다. 그전에는 속인 중에서 쟁투심이 강했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불면증에다 업무 스트레스, 거기에 치명적인 심장 통증 등이 겹쳐 정신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神)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운 사존께서 우주의 보배인 ‘전법륜(轉法輪)’을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보서(寶書) ‘전법륜’의 ‘업력(業力)의 전화(轉化)’를 법공부하면서 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습니다. 아, 알고 보니 온몸의 병은 모두 제가 ‘다뤄서 얻어온’ 것이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법을 얻지 못했다면 영원히 이 천기(天機)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희망의 길로 들어서서 회귀의 천제(天梯, 하늘 사다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신(神)의 길 위에서 전진하며, 사악한 세력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퍼뜨린 거짓 말에 중독된 중생들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며, 중생이 구원되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수련생을 위해 생각하니 난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다

사존께서 제게 안배해주신 법을 실증하는 길은 주로 수련생에게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수련생을 도와 진상 자료점을 구축하며, 프린터 유지·보수 및 컴퓨터의 사소한 고장 해결, 진상

집으로 들이닥친 장샤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파출소로 납치됐다가 혈압이 높아 ‘처분보류’로 귀가시켰다. 2024년 7월 16일, 경찰은 다시 한번 집으로 찾아와 왕샤오홍을 납치했으나, 역시 그의 혈압이 높아 어쩔 수 없이 당일 그를 귀가시켰다. 2024년 8월 말, 왕샤오홍은 다시 경찰에 납치됐다.

산시성 안강시의 74세 파룬궁수련자 두신친(度欣芹)이 2023년 말, 안강시 한빈구 국보에 비밀리에 납치돼 구금되고 모함당했으며, 줄곧 상황이 불분명했다. 그녀의 가족은 국보, 정법위 등 요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등의 위협을 받았다. 최근 두신친이 이미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광둥성 메이저우시 도심 파룬궁수련자 류칭링(劉清玲·여·50대)은 불법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 4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2025년 4월 23일 오전, 메이저우시 메이장구 장난의 파룬궁수련자 류칭링은 모친 리구이잉(黎桂英·80대)과 함께 길에서 메이장구 국보 경찰에게 가로막혀 몸수색을 당한 후 납치됐다. 다음 날 리구이잉은 가족이 파출소에서 집으로 데려왔으나, 류칭링은 계속 석방되지 않고 메이저우시 청둥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후베이성 황스시의 파룬궁수련자 등쥐인(童菊銀), 리차이화(李彩華), 왕춘홍(汪春紅) 등이 2025년 12월 다예시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75세인 등쥐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이미 경찰에 납치돼 구금됐으며, 다른 수련자들의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다. 2024년 12월 25일, 등쥐인과 리차이화, 리핑(李萍), 왕춘홍 등 파룬궁수련자들은 황스시 다예시

인쭈진에서 시민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던 중 다예시 류런 바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됐고, 다예시 구류소로 끌려가 15일간 불법 구금됐다. 2025년 1월 9일, 리차이화, 리핑, 왕춘홍은 황스시 제1구치소로 이송됐다. 동궐인은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당했고,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2025년 6월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다예시 공안국은 그녀들을 모함해 다예시 검찰원으로 송치했다.

속인에 가까운 상태로 안으로 찾는 건 형식에 그치고, 안으로 찾기 위해 안으로 찾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련인의 상태로 안으로 찾으면, 겉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진정한 변화를 촉진합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원망하면 안 돼’라고 타이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승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을 질책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저는 사람이 확실히 고통과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경지를 높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런 실패와 시험, 고난이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이번 일을 수련생들과 교류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컴퓨터가 고장 난 일로만 여기고 ‘내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성하는 속인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 일을 빌려 법리(法理)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신 사부님의 신묘한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만드시 사람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 ‘만드시 안으로 찾아야 해’라는 생각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와 제고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직 제고하려 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동화하려는 일념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법리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을 때,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여러 일과 사부님의 가지(加持)가 더해져 마음속 불만과 원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고, 진정한 안으로 찾기이며, 진정한 심성 제고임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이 발생한 후에도 깨달음이 투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 체험문을 쓰고 수련생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더 명확하고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됐습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 때 전기를 연결하면 합선으로 고장 나기 쉽지만, 저는 조심스레 전원선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팅 소리가 나더니 TV 모니터에 화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감격해 “성공했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내용을 온전히 저장했고 데이터 이동도 금방 끝내, 별다른 수고 없이 중생 구도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K 수련생과 심성 교류를 하는데 어떤 항목 협조인이 K의 생각대로 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속인의 이치로 보면 그 협조인의 방식이 틀리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K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건 당신의 사람 마음을 내려놓게 하려는 거예요. 협조인이 당신 생각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부님께서 수련생을 시켜 그렇게 하게 하신 걸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같은 말로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남편이 컴퓨터를 고장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사부님께서 내 사람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배치하신 거야.’

그러자 방금 전까지 마음 한구석에 있던 ‘남편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답답함이 짝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만 보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수련인의 상태로 자신을 법(法) 속에 두고 안으로 부족함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 상태에서 안으로 찾던 것과 비교하면 순수한 정도, 깊이, 마음가짐, 목적 등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는데, 몸소 교훈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느꼈고, ‘수련인의 상태로 안으로 찾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 수련교류 ■

사부님께서 제자와 중생을 위해 감당하신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명혜망에 미국 수련생의 교류 글 ‘사부님의 감당을 보고 느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원망 등 집착을 내려놓다’가 실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명혜망에서 이 글을 보았고, 나중에 《명혜주간(明慧周刊)》에서 다시 세심히 읽고 그 글을 자세히 체득했습니다. 글쓴이는 사부님께서 우주 중생과 대법제자를 위해 감당하신 것을 보고 난 후의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사부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단지 “저는 사부님께서 감당하시는 고통이 예수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당하신 고통은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부님께서 이 육신으로 무엇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사부님께서 이 육신으로 전 우주와 최고층까지 감당을 저는 상상할 수도 구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부님은 정말로 위대함 그 이상입니다” 등등으로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왜 사부님께서 우주 중생과 대법제자를 위해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인류의 어떤 언어로도 사부님의 감당을 묘사하기에 부족하고, 사부님의 비장함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체득했습니다.

풍과 속에서 걸어온 대법제자에게는,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업력을 감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고비 중에서 걸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중의 아주 조금만 체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저와 주변 수련생 몇 명이 고비를 넘을 때의 경험을 통해 이 방면의 체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부님께서 용서하시고,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십시오.

박해 초기, 저와 수련생이 현지 세뇌반에 구금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사악이 우리가 전향하지 않자 우리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가죽 롤러와 나무 막대기로 우리의 손과 발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련생은 맞아서 절뚝거리며 걸었고, 저의 한쪽 발 엄지발가락은 맞아 시커멓게 됐으며, 엄지발가락 발톱은 나중에 빠지고 새 발톱이 다시 났는데, 저는 전 과정에서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련생도 맞아서 절뚝거릴지라도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사부님께서 자비롭게 저희를 위해 감당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또 어느 날 저녁, 저는 홀로 방으로 불려 갔습니다. 세뇌반이 고용한 타수(打手)는 튼튼한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저에게 바닥에 결가부좌를 하라고 하며 저를 폭행할 태세였습니다. 제가 세뇌반에 구금되기 전에 사부님께서서는 막 《북미순회설법》을 발표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를 들겠다. 중국 국내 일부 수련생들은 그리 잘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 잡혀가 박해를 받는데, 그 악한 경찰은 그들을 아주 심하게 때린다. 그런데 그럴 때면 어떤 수련생들은 정념이 부족함으로 인해 받는 박해가 더욱 심해진다. 사악이 그를 때릴 때 그는 자신이 대법제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부님께 구원을 요청해야지 하는 것마저 생각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사부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에도 두려운 마음이 강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아주 심하게 맞아 너무 아프면 참지 못

둔 터라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어젯밤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침수라면 거의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만 대략 15만 엔(한화 약 140만 원) 정도 듭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해 새로 산 컴퓨터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수리는 안 해도 되니 데이터만이라도 살릴 수 없는지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직원은 “일단 상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침 한 수련생이 2023년 명혜망 교류 문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으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법(法)에 있지 않은 표현이다.” “생활 속에서 매일 사람의 생각이 주도하고, 밖으로 추구하고 밖으로 원망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상태다. 진아(眞我)는 투항하고 포기하여 스스로 사람으로 떨어진 것이다.” “안으로 찾는가 아니면 밖을 보는가? 이것이 ‘사람’과 ‘수련인’의 상태를 가장 잘 구분한다.”

이 내용은 제게 너무나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 건 남편 잘못이야’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안으로 찾아 제게도 잘못이 있음을 알았지만, 마음은 순수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 마음을 품은 채 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깨달았을 때 직원이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모니터만 고장 났고 본체는 멀쩡합니다. 댁에 가셔서 TV 같은 다른 모니터에 연결하면 데이터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인보드 회로가 간신히 버티고 있어서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저는 방금 자신의 사람 상태를 깨달았기에 손실을 제 때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집에 돌아와 모니터를 연결하려는데 마침 배터리가 다 돼

제대로 닦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컴퓨터는 오늘날 거기에 둔 게 아니라 늘 평소 두던 위치에 있었으니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된다’고 되뇌면서도 솟구치는 불만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간을 사건 발생 15분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된 컴퓨터를 보며 이를 복구하려면 정념(正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념을 강화하려면 사람의 방법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심성(心性)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컴퓨터를 그곳에 둔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제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했는데, 귀찮아서 늘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 잘못도 있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책임을 남편 절반, 나 절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만에서 유학 중인 딸과 통화하면서 컴퓨터 이야기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몹시 칭찬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정말 잘했어. 아빠를 한마디도 탓하지 않았어. 예전 엄마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야. 정말 대단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부끄러워져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엄마 속마음은 시커멓고 더러웠어. 겉보기에 다른 사람 잘못이라도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야.”

잠자기 전 정념을 받았습니다. 이 컴퓨터는 제가 매일 중생 구도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기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백업해두지 않았기에 전원이라도 켜져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부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도 컴퓨터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수리 예약을 해

하고 대신 오히려 “아이고! 아이고!”라고 소리친다. 완전히 이 박해를 속인이 사람을 박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럴 때 내가 그를 보호한다면 이런 구세력 그것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 우주의 이치를 수호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것이 우주의 유일한 이치라고 여길 뿐 새로운 우주를 보지 못한다. 그것들은 “이것이 당신의 제자입니까? 당신이 보십시오. 그가 당신을 사부로 여깁니까? 그가 자신을 수련인으로 여깁니까? 그에게 정념이 있습니까? 그가 생사를 내려놓았습니까? 그가 금강부동(金剛不動)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이럴 때에 사부는 그것들의 질책에 정말로 할 말이 없다.”(북미순회 설법)

저는 사부님의 위의 설법을 단단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줄곧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어 사악이 대법제자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 저녁 제가 그 방으로 불러 가는 동시에 사부님께서 세뇌반 직원 한 분을 그 방으로 배치해 주셨습니다. 이 610 인원은 시의 다른 부서에서 세뇌반으로 차출된 사람이었는데, 저와 수련생이 깊이 진상을 알린 후 그는 이때 이미 철저히 진상을 깨달아 대법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저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정식 직원이고 고용된 타수는 임시직이었기에, 그 상황을 보고 감히 저에게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도 우리와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폭행은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해소되었습니다. 미국 수련생의 이 글을 본 후, 저는 그때 사부님께서 저 대신 폭행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악이 마음의 균형을 찾았고, 제가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 지역의 한 수련생은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향을 거부하고 사악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7~8명의 경찰이 동시에 전기봉으로 그를 감전시켰는데, 다른 공간의 사악을 겨냥하여 그는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정법 구결을 염했지만, 사악의 밀도가 커서 역부족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는 큰 소리로 “리홍쑤(李洪志) 사부님, 저를 구해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외치는 순간, 몇 명의 경찰이 동시에 뒤로 물러나며 악행을 멈췄습니다. 수련생은 이어서 가부좌를 하고 사부님께 “사부님, 그들의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들도 위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수련생은 감사와 자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들은 이 말을 듣고 수련생에게 “○ 수련생,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난을 해결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은 그에게 고문을 가할 때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고문해 죽어도 그냥 자살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생에게 그것은 생사의 관문이었습니다. 미국 수련생이 쓴 ‘사부님의 감당을 보고 느낀 충격’ 이 글을 본 후, 저는 사부님께서 다른 공간의 몸으로 그때 강력한 감전 고문을 당하시면서 수련생 대신 목숨을 갚아주셨기에 수련생이 이 생사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의 또 다른 수련생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매우 불편하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족 중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친척이 생각나서, 사람의 방법으로 나타난 병업 가상을 해결하려고 했습

사람의 상태로 안으로 찾는 것과 수련인의 상태로 안으로 찾는 것

글/ 일본 대법제자

[명혜망] 어느 날,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조리대 위의 요리를 식탁으로 옮기다가 갑자기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어!”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국그릇이 떨어지며 국물이 옆에 둔 제 노트북과 주변 물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놀라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곧 냉정함을 유지하며 그에게 “컴퓨터 잘 닦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요리를 다 하고 식탁으로 와서 컴퓨터를 열어보니, 화면 주변에 여전히 국물이 묻어 축축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걸면만 대충 닦고는 “괜찮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젖어 있잖아요”라며 급히 컴퓨터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닦고 있는 동안 컴퓨터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던니, 화면이 새까맣게 변하고 이상한 녹색 표시등이 켜진 채 더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닦았다고 했지만 깨끗이 안 닦아서 결국 사달이 났잖아. 처음부터 깨끗이 닦았으면 컴퓨터가 고장 나지 않았을 거야. 국그릇을 옆지르다니, 이런 서투른 짓은 어른이라면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일인데.’ 그 와중에 남편은 제게 국이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다 쏟았는데 어떻게 국이 남아 있겠어.’

이 일을 통해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컴퓨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남편이 믿기 힘든 실수를 저질렀고, 국물을 쏟은 후

한 한 개입하지 않아야 하고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빗나가고 수련생의 수련을 교란하는 역할을 해 수련의 큰 금기를 범하게 되고, 사오(邪悟)한 자들도 쉽게 섞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련생들은 안으로 찾았고 자신의 많은 집착심을 찾았지만, 이 각도에서 찾지 않아 찾는 것이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악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방면에서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수련 형식을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만약 무의식중에 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수련생들이 교란을 받았는지? 자신의 원인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은 또한 연루된 관련 수련생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을 만회하며 진정으로 이 문제들을 모두 명확히 정리해야만 사악의 배치를 철저히 타파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수련생이 공중 계정을 만들어서 전통문화나 불교 수련 관련 글을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글은 동태망(動態網)이나 칸중국(看中國)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부 수련생이 사악에게 납치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중국과 해외는 다릅니다. 해외는 소셜미디어를 만들 때 대법 진상 알리기를 위주로 합니다. 중국 공중 계정에서는 직접 대법 진상을 언급할 수 없고 다른 종교의 수련 이야기만 언급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외 수련생들이 만든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온 글이지만 올리는 글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는 대법 진선인(眞·善·忍)을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실증하는 것과 같아서 사악이 박해하는 구실이 됩니다.

개인적인 체득이며 층차의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니다. 그는 한의사와 매우 친했는데, 사실 이때 그의 생각은 이미 바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꿈에서 사부님께서 나타나시어 그에게 “이것이 사부님과 대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부님의 표정은 매우 엄숙하셨습니다. 그는 ‘맞다, 나는 대법제자인데 사람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 사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사부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반신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을 보았고, 그는 끈적끈적한 느낌을 받았으며, 남은 것은 사부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후 사부님께서 사라지셨고 그는 나왔습니다. 일어나 보니 땅에 한 사람이 서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그 사람을 막대기로 내리쳐 쓰러뜨리자 피가 땅에 흥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누가 맞아 죽었는지 의아했지만, 나중에 사부님께서 그 대신 목숨의 빛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왔고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또 산 채로 장기 적출을 당한 대법제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을 잃었지만 그들이 장기 적출을 당할 때 더 큰 고통은 사부님께서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이라는 책에 언급되어 있듯이, 그때 500명의 대법제자가 뜨거운 쇠물에 던져져 타들어 갔고, 순식간에 수련생의 육신은 사라졌고 원신은 육신을 떠나 사부님을 따랐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부님, 인류의 어떤 언어를 다 사용해도 제자들을 향한 사부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형용할 수 없으며, 사부님께서 감당하고 지불하신 모든 것을 더욱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저는 《명혜주간》에 실렸던 공동 업력에 관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 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온 가족이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멸살된 원인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한 생애 석가모니 가족 사람들이 연못의 물고기들을 죽였고, 이웃 나라 사람들은 바로 그 연못의 물고기들이 환생한 것이었기에 석가모니 가족에게 이런 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때 이미 부처를 성취했지만 그의 가족들을 대신하여 이 업보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온 가족이 멸살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우주의 법칙이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자비롭고 위대한 사부님께서는 억이 넘는 제자들의 업력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세인과 무량한 우주 중생의 업력까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우주는 이미 종결되었을 것이고 인류는 일찌감치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주괴멸(成住壞滅)은 우주의 법칙이지만 창세주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후기

이 글을 쓸 때, 저는 마침 사부님의 고향 제자가 쓴 법회 교류글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의 길을 건다’를 보았습니다. 글의 다섯 번째 부분 ‘사부님을 도와 법난을 끝내다’에서 글쓴이는 “2024년 6월 5일, 사부님께서 《법난(法難)》을 발표하셨습니다. 정법 제자의 수련은 최후의 관문으로 들어섰으며, 사부님께서는 전반 정법 시기에 우리가 법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시려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대법제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각 나라 정부, 정계 인사, 그리고 세인이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지금 법공부에 능동적이지 않아 매일 제가 두세 번 불러야만 오고, 매번 부를 때마다 오지 않아 잠시 후에 또 불러야 했습니다. 매일 그를 부르는 것이 저도 지긋지긋해져서 ‘어쩌면 이렇게 정진하지 않을까, 됐어, 아마도 그도 수련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나는 상관하지 않을래, 법공부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르지 않으니 그는 정말로 법공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속인 속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사부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것이므로, 저는 저 스스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 아이를 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부님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증명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재발급하러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 주변 관련 부서에 가서 재발급받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반공(搬運功)을 시도해 보고 싶었고,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며 세 번 정도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다시 나타났는데 그곳은 증명서를 놓을 만한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고 느꼈는데, 공능이 작용한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자면 대법제자의 수련의 길은 매우 좁고, 특히 중국 대법제자는 조금만 벗어나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최근 제 주변 수련생이 괴롭힘과 박해를 당했는데, 제가 보기에 일부 수련생이 사악에게 표적이 된 원인은 수련의 엄숙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무의식중에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수련 형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련생이 이 법리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 대한 요구도 엄격하지 않습니다. 대법제자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하며, 다른 속인의 일은 가능

청하던 많은 사람이 진상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변호사는 속인이지만 변호사의 역할은 박해를 폭로하고 수련생을 보호하며 대법제자가 중생을 구하는 것을 돕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을 실증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악이 이것을 겨냥해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박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정념을 발할 때 깨달았는데, 대법제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할 때 구금된 대법제자를 돕기 위해 정념을 발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를 위해 정념을 발해야 합니다. 그들이 많은 경우 대법제자의 목소리 역할을 하며 대법제자를 위해 발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악이 변호사를 교란하는 것은 이 일을 망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에서 오는 박해에 직면해 변호사는 속인이기에 무력하며 소극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커지면 그냥 손을 떼고 이 사건을 맡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도 적지 않아 일부 초기의 인권변호사들은 대법제자를 위한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구세력이 이렇게 하는 구실은 변호사에게 위덕(威德)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하며, 변호사 자격증 취소 등도 모두 구세력이 한 짓이지만 실제로는 중생구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련생들은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이 문제에 주의하고, 변호사가 다른 공간에서 오는 박해를 제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한번은 아이의 매우 중요한 증명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집안 구석구석을 세 번, 네 번 뒤집어엮었지만 찾지 못했어 어쩔 수 없이 재발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았는데, 아이가 증명서를 잃어버린 것은 그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요즘 법공부를 하지 않아 대법제자 신분을 잃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의원 8명이 공동으로 《파룬궁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미국 의회 덕슨(Dirksen) 상원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공동 의장이자 ‘전국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공의 파룬궁 집단학살 범죄를 인정하고,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가 종교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지지하며, 파룬궁수련자가 중공의 인터넷 봉쇄를 뚫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이 파룬궁 등 중공의 박해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면담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에서 탈퇴하도록 돕는 파룬궁수련자와 함께 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을 앞두고, 몇몇 영국 정계 인사가 편지를 보내 26년간의 박해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확고한 지지를 표했으며, 중국에서 발생하는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구금된 양심수들에게 자행되는 강제 생체 장기적출의 만행을 막도록 도우며, 국제사회가 함께 중공의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부님 고향 제자가 말했듯이, “법난의 마지막 순간에, 사부님께서 정법 제자에게 부여하신 모든 능력을 발휘해, 진정으로 박해를 저지하고, 사악을 완전히 제거하며, 사부님께서 정법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부님의 정법은 많은 부분이 시공간에 구현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우리가 사부님을 도와 시공간을 초월해 할

수 있는 것은 정념을 많이 발하고 정념을 잘 발하는 것입니다.”

사부님을 보호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우리 정법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부님께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낡은 우주의 신과 중생이 사부님께 죄를 짓게 하고 대법에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전체 대법제자의 공(功)을 합쳐 정념을 발해 박해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부족한 점은 자비로 지적해주십시오.

대면으로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집착을 없애다

글/ 호주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예전에 시드니 관광 명소에서 대면으로 진상을 알렸는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직 그다지 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항에 부딪히거나,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저를 백안시하며 욕하는 중생을 마주하면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자신이 크게 상처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는 움츠러들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고, 기차역 근처를 서성거리며 ‘집에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면으로 진상을 알릴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부님의 법이 제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나마저도 너무나 조급한데, 당신들은 도리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각지 설법 14-2016년 뉴욕법회 설법) 사부님의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제자가 잘하지 못해 사부님을 애태우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

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담하듯 손을 내밀며 “재물이 어디에 있니?”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뜻밖에도 일주일 후 가족이 저에게 1만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 일은 저의 신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고, 법공부할 때 사부님께서도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이 일에 대해 간헐적으로 정념을 발했습니다. 정념을 발한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매번 이 일에 대해 정념을 발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법을 외운 후에 정념을 발했고, 자신이 순수한 마음가짐을 유지해 진정으로 정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여 후 제가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금액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한번은 우연히 한 인권변호사 A가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은 생략) 변호 활동을 할 수 없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이미 A가 변호를 돕기로 확정돼 있었는데, 자칫 일이 지연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이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생을 구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이는 사악한 요소가 교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교란하는 사악한 생명을 겨냥해 정념을 발했습니다. 물론 대법제자는 속인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기에, 저는 변호사를 교란하는 구세력의 흑수(黑手)와 사악한 요소를 직접 겨냥해 매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법을 외운 후 정시에 정념을 발했습니다. 그동안 벼락이 치듯 변호사를 박해하는 사악한 요소를 향해 터지는 것을 느꼈고 약 보름 동안 견지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A 변호사 가족의 병이 많이 호전됐고, 이 변호사는 다시 변호를 시작했으며 효과도 매우 좋아서 방

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경제적 박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라고 확고히 생각했습니다. 기적처럼 사부님의 배치하에 노력 끝에 중년인 제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더 배웠고, 이 기술을 익힌 후에는 직장을 구하기가 꽤 쉬워졌으며 마침내 더는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록 안정된 직장을 얻었지만 수입은 그리 높지 않았고, 연말에 통장을 보면 잔액이 기본적으로 1만 위안도 채 안 돼 가진 돈이 겨우 쓸 만کم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제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박해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악이 파룬궁을 박해하며 외친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이었는데, 사악이 이렇게 중시한다는 것은 반대로 구세력의 경제 박해 배치를 타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념을 발해 구세력이 강요한 경제 박해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직장에서 한가할 때 저는 정념을 발했는데, 생각이 매우 집중되고 염력(念力)이 강했습니다. ‘구세력이 강요한 경제 박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구세력의 일체 배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염하자마자 순간 천목으로 하늘에 아주 큰 자루(중국에서 이삿짐 쌀 때 쓰는 직물 자루와 비슷함)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는데, 갑자기 구멍이 뚫어지면서 그 안에서 금빛으로 번쩍이는 금화 십여 개가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깨닫건대 그 자루는 모두 사악이 억류했던 저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금화가 떨어졌다고? 내 재물이 온다는 뜻인가? 정념이 효과가 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

의 세계에 있는 중생들 또한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자기 사람 마음에 집착하며 체면을 중시하고, 남에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등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동시에, 이것이 바로 집착을 없앨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버텨야 했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사람들 속에서 인연 있는 이를 찾아 계속해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울면 안 돼, 눈이 이렇게 빨개서 어떻게 진상을 알리겠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념을 발하며 사부님께 저를 가지(加持)해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많은 사람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생들이 모두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반드시 밖으로 나가 대면으로 진상을 알려야 했고, 단일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다소 어렵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영감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관광 명소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의 소중한 추억도 남겨줄 수 있고, 진상을 알리기도 편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찍을 줄 몰라 마음속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제가 찍은 사진이 수준이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를 격려해주신 것임을 알았고 사부님의 가지에 감사드렸습니다.

한번은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모습을 보았는데 대략 7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사진 찍는 것을 도와드릴지

물었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만족해했고, 제가 함께 걸으며 계속 사진을 찍어주기를 바랐기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풍경을 감상했고, 많은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들은 제가 내내 동행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진심과 선량함을 느끼며 차분히 끝까지 진상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모두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상을 알리는 힘겨운 여정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비로운 사존의 가지와 대법의 힘이 저를 지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공간장에 바른 에너지가 형성됐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상을 알릴 때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 바른 에너지장 속에서 해체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상을 알리면서 물려서지 않게 됐고, 끊임없는 법공부를 통해 대법제자는 중생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대법제자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97세인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또 페이스북에서 진상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퇴 권유는 주로 외출해 일을 보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가거나, 공원에 가서 연공하거나, 서명 활동을 하거나, 관광 명소에 갈 때와 같은 기회를 활용해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진상을 다 들은 뒤 그들은 기쁘게 삼퇴했습니다. 학생도 있었고 젊은이와 연세 드신 분들도 있었으며, 기독교인도 있었고 간부도 있었으며, 절에 있는 비구니 등도 있었습니다. 중

들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는 천리(天理)다. 업무 관계상 경찰은 대법제자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은데, 중국공산당(중공) 붉은 마귀가 수련인을 박해하는 것은 동시에 그들 자신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진상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그 자신의 일이다.

경찰 중에는 실제로 선량하여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들 모두는 한때 사부님의 가족이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해 방법을 생각해 진상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 겉으로는 그들의 동정과 보호를 얻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에 호소하고 이치로 깨우쳐, 그들이 진상을 명백히 알고 구원받아 중공을 위해 순장되는 결말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정념으로 박해를 부정하고 공능을 운용한 약간의 체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이전에 꽤 괜찮은 직장이 있었지만 박해를 당한 후 실직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생계를 위해 채용 사이트에서 아무 일자리나 찾았는데, 대부분 고객센터, 영업, 전화 응대 등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적당한 것은 무엇이든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쉽게 해고돼 직장이 불안정했으며 늘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했습니다.

한번은 수련생의 교류 글을 들었는데, 이런 경제적 박해를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은 것이 구세력이 배치한 것이지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

고, 또한 그가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을 써야 하며 훈계하거나 주입하는 방식이 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때 나는 완전히 위타(爲他, 타인을 위함)의 기초에서 마음을 썼다. 박해 속에서 나와 가족이 겪은 부당함과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는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또한 대법이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사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점, 박해에 가담하면 감당해야 할 결과(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각도에서)를 말했고, 경찰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지, 수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말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때 자비심이 나와 눈물과 함께 말이 술술 이어졌고, 그를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설득해 대법의 자비와 위엄을 체현했다. 겉으로는 나의 슬픔과 억울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온 힘을 다해 맞은편의 경찰을 구하고 있었고 사부님의 가지를 구하고 있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어 나를 존중하고 동정하게 됐다. 그는 박해 사례에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고 대법제자의 선량함에 감동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또한 상대방의 단순하고 선한 면을 느꼈는데 말에 꾸밈이나 숨김이 없었다. 아울러 전임 담당 경찰이 나를 보호해줬다는 사실도 알게 돼 정말로 그를 위해 기뻐다.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미래가 있다.

사실 어떠한 박해와 괴롭힘도 진정한 수련인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가 어떠한가, 대법제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국에서 온 어떤 중생들은 진상을 다 들은 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제게 아이에게도 진상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의 자비와 부르심이며, 말후(末後)에 중생들에게 구원받을 기회와 인연을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번은 한 원로 간부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중공)을 좋아하지 않았고 중공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상을 알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삼퇴를 한다고 해서 중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라고 하며 저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반공 발언을 한 영상과 직접 쓴 시와 글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게 아들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중생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바로 ‘나는 대법제자이고 사부님의 가지가 있다. 그가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를 구해야 한다!’ 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사람 마음 즉, 쟁투심, 조급한 마음, 과시심을 없애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저는 중생의 마음속 소리를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를 제 가족처럼 여기며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해야 했으며,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적절한 때에 그와 호응하며 그의 행동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그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영상과 시는 모두 훌륭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재능 있는 분이십니다.” 이어 화제를 돌리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까?” 그는 “좋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삼퇴가 중요한지 그 이유와, 기타 파룬궁 진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삼퇴에 동의했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선생님께서 큰 재난을 피한 뒤에야 파룬궁이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신을 잘 수련해 선한 마음과 실제 사례로 경찰을 감동시키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많은 중국 수련생은 경찰에게 괴롭힘과 박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이 경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심성(心性)이 변화하고 승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는 피동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던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진상을 알리며 사람을 구하는 과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는 수련인이 끊임없이 법공부하고 도를 깨달으며, 자아와 사람마음을 내려놓고 점차 대법의 ‘진선인(眞·善·忍)’에 동화되는 자기 정화와 제고가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포함한 모든 중생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대법제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대법의 자비와 위엄, 원용불파(圓容不破)를 실증하고 있다.

사실 대법제자 자신은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고하는 각도와 일언일행(一言一行)의 도덕적 수준에서 이미 일

반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일에 부딪히면 밖으로 미루던 데서 매사 먼저 자신을 찾고 안으로 수련하는 것으로의 변화이며, 위사위아(爲私爲我)에서 선타후아(先他後我)로 나아가는 수련 과정이다. 이는 속인이 해내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대법 수련인은 세상에서 유일한清流(淸流)이며, 대법제자는 세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가 자신을 잘 수련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해야만 자신의 세계를 번영시킬 수 있고, 비로소 더 많은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창세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원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수련생이 박해 속에서도 정념(正念)을 견지하고 자비로 사람을 대했던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또 대법제자들이 전통 도덕을 지키고 심성을 닦아 좋은 사람이 된 실제 사례들을 열거하기만 해도, 많은 경찰을 감동시키고 존경과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찰 또한 중생의 일원이며 역시 법을 위해 온 생명이다. 다만 직업이 다르고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 사람마다 모두 선근(善根)이 있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인연 있는 사람으로, 천만년을 쌓아 온 기연(機緣)이 바로 이 순간 진상을 듣고 미혹을 깨고 구원받기 위함이다.

한번은 이른바 ‘민감한 날’에 경찰의 전화 괴롭힘을 받는 가운데, 나는 경찰이 진상을 들으러 왔다는 것을 매우 강렬하게 의식했다. 내가 그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리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천만년을 기다려온 것을 저버리는 것이고, 사부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몹시 후회할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가지(加持)를 청하며 반드시 그를 구해야 하